

2012년 가을 제58권 3호

성서한국

쿠바에 성경을 보냅니다!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12.9.1~13.8.31
서초우체국
승인 제41180호

받는사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16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

1 3 7 - 8 6 3

 **BIBLE** 매달 한 권의 성경을...
A MONTH CLUB

BIBLE A MONTH CLUB!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전 세계에는 정치, 종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성서 번역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블 어 먼쓰 클럽(Bible a Month Club)은
매월 정기적으로 성서헌금을 약정하여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보내는
운동입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문의 사항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 02-2103-8833~4 팩스: 02-2103-8894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16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 / www.bskorea.or.kr



 대한성서공회

기념일 성경 나눔!

성경 나눔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마음, 세상의 아이들과 나누겠습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이란?

특별하고 소중한 날을 기념하여, 성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성경을 나누고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은 이런 날 할 수 있어요!

결혼, 결혼기념일, 출산, 돌, 생일, 입학, 졸업, 취업, 승진, 은퇴, 창립기념일, 부활절, 추수 감사절 등 특별한 날에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에 참여하시면...

본인이나 가족, 친지, 동료 등의 기념일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기부해 주세요. 10만원 이상의 후원을 해주시면 사진과 함께 나눔의 글이 담긴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를 액자에 담아 드립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를 원하시는 경우 사진과 글을 보내주세요.

★ 기념일 성경 나눔 신청방법

기념일 성경 나눔은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080-374-3061 / 02-2103-8833~4)

홈페이지 <http://www.bskorea.or.kr> | 이메일 biblef@bskorea.or.kr | 팩스 02-2103-8894

기념일 성경 나눔 신청서

성명 : _____ 연락처 : _____

주소 : _____

이메일 : _____

후원금액 : _____

후원계좌 : 수협은행 1010-0997-7440 (예금주 : 대한성서교회) *송금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 신청 : ☐ 예 ☐ 아니오

(성경 나눔 증서를 신청하신 경우 아래 내역을 작성하여 주시면, 증서에 넣어 제작해 드립니다.)

나눔 증서에 넣기 원하는 성경 : _____ 기념일 : _____

나눔 증서에 남기고 싶은 말씀 : _____

C O N T E N T S

2 모금소식

쿠바에 100만 부의 성경을... · 호재민

6 사람과 사람들

한국의 바다에서 순교한 성서 번역자, 아펜젤러 목사 · 전무용

8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③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한 마게도냐의 주도(州都), 데살로니가 · 장홍길

12 성서 속의 물건들⑦

"배, 선박"

14 군부대에서 온 편지

낡은 성경책을 새 성경책으로 바꾼

제1군수지원사령부 교회들 · 정한식

성경읽기 운동이 일어난 81보병연대 평화교회 · 허원희

28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 군종병의 고백 · 황정수

18 KBS 소식

아펜젤러 목사 순교 110주년을 맞이하여 그 후손들

본 공회 방문

아이티에 성경 2만 권을 보내는 협약식 체결

대만과 나이지리아성서공회에서 본 공회 방문

‘대한성서공회 연구성경’ 출시

기념일 성경 나눔 운동 시작

22 지구촌 소식

우루과이성서공회에서 보낸 감사 편지

23 세계 성서사업 소식

전세계 성경, 3천만 부 이상 반포되다



넓고 무거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쿠바의 두 자매



성서한국

2012 · 가을
제58권 3호

- 발행인 겸 편집인: 권의현 · 발행처: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16 · 팩스: 2103-8894
- 회원문의: 2103-8833-4 · 편집문의: 2103-8811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2103-8791-2
- 은행지로: 7511327 · 발행일: 2012년 9월 30일
- 인쇄인: 김현수 · 인쇄처: 삼립인쇄(주) · 편집: 디자인하우스 하늘

■ <http://www.bskorea.or.kr> / 인터넷으로 성경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찬성회원(후원, 가정, 평생회원) 회비 완납자 명단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쿠바에 100만 부의 성경을...

호재민(홍보진흥본부 본부장)



쿠바의 교회는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하여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쿠바의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이들에게는 성경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갖는 젊은이들

오래전 쿠바의 젊은이들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과 예배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점차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공부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성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성서공회처럼 쿠바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쿠바성서위원회(Biblical Commission of Cuba)에서는 15세에서 22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성경이 적어도 수만 부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참가하는 스포츠 행사, 음악회, 캠프, 축제 등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찬양 예배 때 워십댄스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

쿠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쿠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가정에서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는 기독교인이지만 부모는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바성서위원회는 앞으로 3년 간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쿠바의 많은 가족들은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50%가 결혼 후 6개월이 되기 전 이혼을 하고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많은 어려움과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쿠바성서위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부모를 교회와 신앙으로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배우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교회 안에 부모가 그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5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서 열린 토요집회

10년 동안 쿠바 교회는 3배 이상 성장을 하였습니다. 쿠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예배, 각종 모임, 경건회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단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들과 함께 신앙적 열의가 강해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쿠바에 100만 부의 성경을...

현재 쿠바 교회 성도들은 예배와 교회 행사, 여러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복음 선교 활동을 진지하게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어서 처음으로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의 발걸음이 그릇 될까 하는 것입니다.

쿠바성서위원회에서는 현재 쿠바 교회 성도들 중에 약 40% 정도가 자신의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35%의 성도들은 그들의 성경이 너무 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새 성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25%에 불과합니다. 이런 쿠바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적어도 100만 부의 성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의 자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쿠바의 기독교 가정이 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들이 함께 교회에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쿠바의 교회들

쿠바에서 1993년 헌법이 개정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규제들이 풀리면서, 지난

쿠바성서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약 35만 부의 성경을 점진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성경을 요청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첫 해에는 쿠바 동부 지역에 35만 부를, 두 번째 해에는 중부 지역에 35만 부를, 세 번째 해에는 서부 지역에 35만 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교회 안의 목회자, 청년, 어린이, 새신자뿐 아니라 교회 밖의 교도소 수감자, 성경에 관심을 갖는 성경 독자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것입니다.

쿠바에서의 성서 보급

쿠바에는 현재 성경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으며, 모든 성경은 외국의 성서공회와 선교 단체의 지원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급 받는 공식적이며 유일한 통로는 쿠바성서위원회입니다. 모든 성경을 외부(해외)로부터 기증받아서 각 교회에 분배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이 성경들을 약 한화 300원 정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그냥 주는 것보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 대금은 교회의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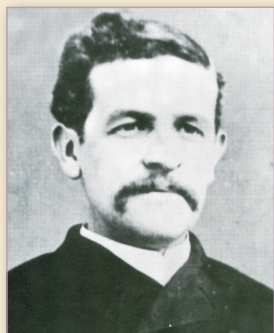
쿠바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고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에 목말라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쿠바에서는 성경을 자체적으로 출판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성경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쿠바 교회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성경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김성기 목사님(예장 통합 파송) 또한 지난 9월 20일 서신을 통해 쿠바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쿠바에서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가능하지만 꾸준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가정에 성경이 없고, 서점에 가도, 도서관에 가도 성경이 없다고 합니다. 쿠바성서위원회가 성경을 보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끼니 걱정을 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김 선교사님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이 이제는 좀 쉬워졌으면 한다고 하며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쿠바에서 복음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들이 요청하는 성경들이 충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만 원을 현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쿠바 성도들에게 성경 2권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쿠바성서위원회 총무 알라인 몬타뇨 목사(왼쪽)



Appenzeller

한국의 바다에서 순교한 성서 번역자, 아펜젤러 목사

전무용(번역실 국장)

금년은 아펜젤러 선교사 순교 1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목사는 1885년 4월 5일에 한국에 입국하여,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한국 근대사의 개척자로 여러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서는 ‘성서 번역자’로서 아펜젤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한다.

1885년 10월 13일자 아펜젤러의 편지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언더우드와 공동으로 한국어로 어떻게 신약성경을 번역할지 논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펜젤러는 입국 후 바로 언더우드와 함께 이수정역 마가복음을 개정하기 시작했고, 1887년 여름 이수정역의 개정판인 <마가의전 혼복음

서언하>를 출간하였다. 1887년 2월 7일 언더우드의 집에서 성경 번역을 위한 상임성서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헤론 등이 참석하였다.

아펜젤러 전기를 쓴 그리피스는 아펜젤러가 처음부터 한국 문자를 습득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에, 1년이 못 되어 한국어 문자를 자신의 사상을 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일상 언어처럼 익숙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아펜젤러는 1886년 4월 2일의 편지에서, 자신이 아직 다른 사람의 번역을 판단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 1887년 12월 25일 언더우드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설교를 읽었다. 본인의

생각을 어학선생 조씨에게 들려 주면 조씨가 적당한 한국말로 표현해 준 원고였다. 1888년 3월의 아펜젤러의 일기에는 한국어를 읽는 것과 올바른 문장 형태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1890년 1월 2일 아펜젤러의 연례보고서에는, 존로스(John Ross) 목사가 번역했던 누가복음의 개정판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으며, 이 작업은 거의 인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였다. 아펜젤러는 1890년 3월 <누가복음전>, <보라달로마인서> 3,000부씩을 삼문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보라달로마인서>는 아펜젤러와 스크랜튼이 로스의 로마서를 수정한 것이다. (<보라>는 ‘바울’의

중국식 번역이다.)

1891년 6월 상임성서위원회가 로스역 개정을 포기하고, 아펜젤러와 게일에게 새 번역을 하도록 하였다. 아펜젤러는 마태복음 번역을 시작하였고, 1892년 1월 20일 아펜젤러 번역 <마태복음전>이 임시역본으로 30부 발행되었다. 이 해에 <마태복음전> 1,500부(1,000부는 “하느님” 역, 500부는 “텐주”역)가 발간되었다. 한국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번역된 첫 성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본문은 1900년의 구역으로부터 지금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개역개정판>까지 이어지는 성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893년 5월 16일 스크랜튼의 집에서 상임성서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게일 스크랜튼 트롤로프 5명을 번역자로 임명하였다. 1895년 아펜젤러의 <마태복음>이 수정되어 출판되었다. 존스는 이 번역을 “원문에 충실하고 문체가 간단명료하며 표현이 부드럽다”고 말하였다. 1900년에는 신약전서 전체의 번역이 완료되어 출간되었다. 아펜젤러가

번역을 한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후서>이다. 1900년 5월 5일 성서공회 주일, 아펜젤러는 정동교회에서 완성된 신약전서를 손에 들고 감격적으로 설교하였다.

“우리는 10년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신약전서의 한국어판을 완성하였습니다. ... 이후부터 나는 성경봉독을 할 때는 이 책만 사용할 것이라고 회중앞에 광고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책은 우리 주재 전도사와, 한문에만 몰두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모국어의 장점에 눈멀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00년 9월 9일 주일은 신약성서의 번역 완성을 기념하여 정동제일교회에서 공개 감사예배를 드렸다. 1902년 3월과 4월 아펜젤러와 게일은 아펜젤러의 서재에 모여서 고린도전서 7장까지 개정하고, 성경의 고유명사 3,000개를 정리, 작성하였다. 레닐즈가 목

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 한 달은 3인이 목포에서 공동으로 번역하기로 하였다. 1902년 6월 11일 아펜젤러는 성서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목포로 가던 도중에 군산 앞바다의 어청도 근해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하였다.

2012년 6월 10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사랑의 사도 헨리 아펜젤러 순교 110주년 추모 제1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아펜젤러 목사의 후손인 캐린 올프 양은 인사말에서 “아펜젤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다. 한글 성서 번역과 보급이야말로 ‘아펜젤러의 계획’이었고, 그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제는 한국어 사용자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아펜젤러의 꿈이었고 계획이었다. ☎



<신약전서>(1900년)
표지와 본문

바울이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한 마게도냐의 주도(州都), 데살로니가

장흥길(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오늘날 그리스 제2의 도시로, 수도 아테네에서 약 530km 북동쪽에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중 주후 50년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 빌립보(행 16:12)를 들렀다가 방문했던 항구도시로서 당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선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던 마게도냐의 대도시였다.

우선, 정치적으로 이 도시는, 주전 148년 로마에 편입되어 총독이 주재하는 속주(屬州)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인구 20여만 명이 거주하던 대도시였다. 사도행전(17:1-9)에 의하면, 바울 일행의 선교 활동에 반대한 유대인들이 장터에서 악인들을 데리고 그들이 유숙하던 성도 야손의 집을 덮쳤으나 그들을 발견치 못하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갔다. 여기서 ‘읍장’(행 17:8)이란, 주전 2세기에서 주후 3세기 사이에 제작된 ‘바르달 문’(Vardar Gate) 비문에 의하면, ‘폴리탈케스’(politarches)로, 이 도시를 다스리던 5~6명의 로마 행정관을 의미한다. 데살로니가는 ‘민회’(People’s Assembly) 또는 ‘공회’(demos)를 가지고 있던 자유도시로, 바울 일행의 선교활동에 분개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 대신 잡은 야손 일행을 바로 이 공회의 행정관인 ‘읍장’ 앞에 끌고 갔다.

둘째로, 경제적 관점에서 데살로니가는 주전 2세기 중엽 마게도냐가 로마의 속주가 된 직후 로마가 새롭게 편입된 지방을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일루리아, 마게도냐, 드라게를 연결하여 건설한 국제 포장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Via Egnatia)가 지나가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다.

처음 건설될 당시 이 도로는 아드리아 해(海)의 항구 도시인 디르라키온(현재 알바니아의 두레스)과 아울론(현 블로나)을 기점으로 하여 데살로니가에 이르도록 건설된 대로(大路)였는데,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동편으로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빌립보를 지나 비잔티움(현 이스탄불)에 이르도록 연장되어 총 길이 535 로마 마일(약 790km, 도보로 달포 거리)에 달하는 고대의 고속 도로였다. 이 도로는 로마의 군대가 사용했던 군사로였을 뿐 아니라 상인들의 교역로로 사용되

었는데, 이로써 이 대로상에 위치해 있던 데살로니가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부유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언급된 ‘평안과 안전’(pax et securitas)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살전 5:3). 바울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평안과 안전에 자만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데메트리우스 교회



▲ 5세기 석재 설교단
◀ 데메트리우스 교회 지하 유적

게 돌아오기를 원했다(살전 5:1-11). 이처럼 이 도시의 풍요로움은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말기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딤후 4:10).

셋째로, 데살로니가는 군사 전략적으로 해군 기지로 사용될 뿐 아니라 무역항으로도 사용되던 항구 도시였다. 이 도시는 전방인 남쪽으로 발칸 반도의 해안선 가운데 가장 큰 만(灣)인 데살로니가 만을 끼고, 대형 선박도 정박할 수 있는 앞이 트인 넓은 항구를 가지고 있는, 또 북쪽 후방으로는 코르티아테스(Cortiates) 산지가 에워싸고 있는 산자락에 자리 잡은 항구도시로, 동서로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가 관통하고 있었다. 주전 5세기 데살로니가 만든 오늘날보다도 두 배 정도 컸으나, 도시 주변에 흐르는 바르달(악시오스) 강의 퇴적 작용으로 침적토가 쌓여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넷째로,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무역항을 끼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교역로 역할을 했던 비아 에그나티아 도시를 관통하는 국제화 중심지(cosmo-

politan center)여서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바울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대도시를 방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임을 전하는 선교의 접착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두 번째 선교여행 기간 중,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유럽의 관문 네압볼리로 건너가,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고(행 16:11-40),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였다. 이때 유대인 적대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베뢰아와 아텐을 거쳐 고린도로 갔다(행 17:1-18:17). 고린도에 일 년 반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은 짧은 기간 복음 전도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그들이 주를 본받은 자가 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의 본이 되었음을 칭찬하기도 하였다(살전 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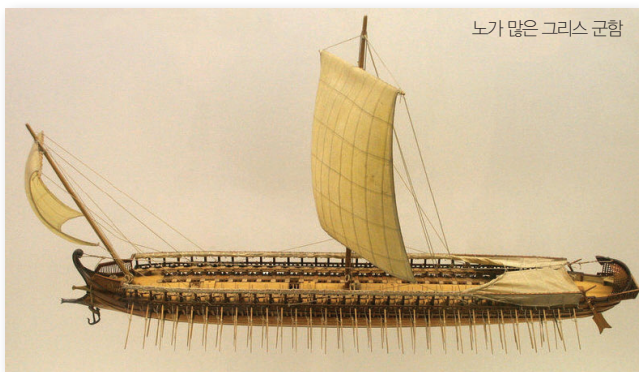
지금까지 이 도시에서 헬라 시대, 초기와 후기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발굴되었다. 헬라 시대의 것으로는 이집트에서 유입된 세라피스 신의 두상, 69점의 비문(碑文)과 초기 헬라 시대의 성벽 등이 남아 있는데, 이 성벽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주후 4-5세기 비잔틴 시대의 성벽과 연결되어 있다. 초기 로마 시대의 유물로는 많은 신전 유물, 황제 상, 비문, 로마식 대광장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세라피스 신전 북쪽에서 발견된 아우구스투스 황제 입상은 거의 온전하게 발견되었다. 후기 로마 시대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유물로는 로마 제국을 네 통치자가 다스리던 4분영 시기(주후 270-300년)에 페르시아에 대한 승전 기념으로 297년에 세워진 갈레리우스 개선문과 305년 갈레리우스 황제에게 순교당한 데메트리우스(Demetrius)를 기념하여 기독교가 공인된 후 5세기 경 그의 무덤 위에 세워진 바실리카 양식의 데메트리우스 교회 등이 있다. 이 교회는 화재와

침략 등으로 여러 번 중건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948년 재건되었다. 그 외에 이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주후 5세기의 석재 설교단 등이 있다.

요약하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시 빌립보를 이어 방문한 주요 선교지였다. 이곳에서 그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보호와 상업적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를 누리면서 이교 신전에 있는 수많은 신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온갖 우상 숭배를 목격하였다. 게다가 이 도시의 경제적 풍요로움에 따른 윤리적 타락은 도를 지나쳤다. 이런 선교지 상황을 목격한 바울은 단기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며,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한 분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였고, 이곳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였다(살전 5:16-18). ☞



배, 선박 (boat, ship)



생김새와 쓰임새

조각배(boats)와 선박(ships)은 수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였다. 이것들은 겨우 서너 사람이 탈 만한 매우 작은 배로부터 많은 사람과 대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대양을 왕래하는 선박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다양했다.

비록 이집트에서는 갈대가 적어도 배의 일부로는 사용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배와 선박들은 나무로 만들었다. 이 배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돛대에 매단 돛이 바람을 받아서 선박을 움직였다. 좀 작은 배에는 배를 젓는 데 노가 사용되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삿대로 강바닥이나 강둑을 밀어서 배를 움직일 수 있었다.

번역

작은 고기잡이 배와 좀 더 큰 배나 선박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언어들에서 이런 구별은 배 갑판의 유무에 따라 이루어진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 배들은 아마도 갑판이 없는 구조였을 것이다. 반면에, 지중해에서 장거리를 항해하는 선박들은 확실히 갑판이 있었을 것이다.

성경에 언급된 좀 더 큰 모든 선박들은 돛이나 노 젓는 사람들로부터 동력을 얻었다. 단지 작은 고기잡이 배밖에 모르는 육지에 갇혀 있는 문화에서는 '선박'을, 예를 들어,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 또는 '해양에서 배를 움직이게 해 주는 돛이 달린 큰 배'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욥 9:26에서 '가벼운 갈대배'(RSV) 또는 파피루스 배는 측면(sides)을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나일 강의 배였다. 이 배는 강에서 빨리 이동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 구절의 첫 번째 줄은 "나의 날들은 빠르게 항해하는 배처럼 빨리 지나간다."라고 번역해도 될 것이다. 돛단배가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물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종류의 운송 수단과 비교해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날들은 빠른 통나무 카누처럼 빨리 흘러간다"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는 배의 이미지를 생략하고 "나의 삶은 매우 빨리 끝난다" 또는 "나의 삶의 날은 곧 끝장난다"로 번역해도 될 것이다.

욥 1:5에서 히브리어 낱말 '스피냐'는 갑판이 지붕으로 덮여 있는 선박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 구절의 '오니야'라는 낱말과 동의어다. 요나가 잠자려고 어디로 갔는가? '선박의 짐칸'(GNT)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 선박이 원래 그랬던 것보다 좀 더 정교한 것임을 암시한다. 여기의 히브리어 낱말은 동굴 안(삼상 24:3)이나 집 안(암 6:10)에서처럼 어떤 우묵하게 들어간 곳(recess)이나 구석(corner)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요나는 단순히, 조용히 잠들 수 있으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아주 외지고 아늑한 곳을 찾고 있었다. CEV의 '갑판 아래'라는 번역은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다. 또한 FRCL의 '배의 밑바닥'이라는 번역도 좋다.



복음서에서는 그리스어 낱말 '플로이온'과 '플로이아리온'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플로이아리온'은 '플로이온'의 축소형 명사이지만 그 두 낱말은 길이가 약 8.5미터, 너비가 약 2.5미터이며 12~15명을 태울 수 있는 고기잡이 배를 지칭한다. 사도행전과 약 3:4에서 '플로이온'이라는 낱말은 흰 트인 바다로 항해 할 수 있는 좀 큰 선박을 가리킨다. 이것은 계 18:17, 19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계 8:9에 언급된 것은 다양한 크기의 배와 선박들을 지칭할 것이다.

행 27:16, 30, 32에서 그리스어 낱말 '스카페'는, 통상적으로 좀 더 큰 선박 안에 보존해 둔 작은 배를 가리키는데 선원들이 닻을 내리거나, 선박을 수리하거나, 폭풍우를 만났을 경우에 인명을 구조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었다. 몇몇 언어에서는 '스카페'는 '노로 젓는 조각배'(rowboat)나 '구명정'(lifeboat)에 대응된다. 히브리어 낱말 '오니'와 '치' 그리고 그리스어 낱말 '스톨로스'는 선박들의 큰 집단, 즉 '함대'를 가리킨다. 🌐

낡은 성경책을 새 성경책으로 바꾼 제1군수지원사령부 교회들

대위 정한식 군목



본 공회가 기증한 성경을 읽고 있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천군교회 장병들

저는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섬기고 있는 정한식 군목입니다. 저희 부대는 인근 전투부대를 군수분야에서 돕는 부대입니다. 따라서 부대 특성상 강원도 전역에 퍼져 있고, 교회 역시 다양한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예하부대 교회만 해도 16개 교회입니다.

8월 8일 대한성서공회로부터 연락을 받아 650권의 <개역개정판> 성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증받아왔습니다. 원주에 있는 사령부 교회에 105권의 성경을 비치하고, 그 외에 원주, 홍천, 가평, 춘천, 인제, 강릉 등 성경이 필요하다고 한 11개의 예하부대 교회들에 성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천군교회의 경우 몇 년 전 국방부에서 보급한 <개역개정판> 성경이 있었는데 표지가 낡아서 뜯어져 있는 성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령부 인근에 있는 612수송대대 승리교회에는 어느 정도 <개역개정판> 성경이 보급되어 있었으나, 역시 권수가 얼마 되지 않아 <개역한글판> 성경 중에서도 세로로 인쇄된 옛 성경까지 쓰고 있는, 성경 보급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 교회들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보

급해 주신 성경을 비치해 놓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어린이 예배, 토요일 소그룹 모임에서 읽도록 제공합니다.

군대 교회에서는 교회마다 다르지만,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성탄절 4대 절기에 세례식을 진행하거나 매월 1회 세례식을 진행하는데, 저희 예하부대에서는 많을 때는 10여 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장병들은 군대에 들어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청년들이고, 신교대에서조차도 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인데,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 들입니다. 이들에게 이제는 교회에서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앞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이 나라의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청년 장병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께서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군인 교회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 운동이 일어난 81보병연대 평화교회

중위 허원희 군종목사

충성! 맹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던 3월 초 대한성서공회에서 군부대에 성서를 기증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사역했던 부대는 경기도 연천 최전방 GOP연대였습니다. 사역하는 교회는 4교회, 각 교회마다 100여 명의 장병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종 작전과 근무, 훈련과 작업에 지치고 힘든 용사들이 주일이면 교회로 와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곤 합니다.

2010년 여름, 초임 군종장교로 임관한 저는 열악한 교회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긴 장의 자마다 성경과 찬송가가 2권씩 놓여 있었는데 예전 <개역한글판> 성경과 구 찬송가, 심지어는 세로쓰기 성경까지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병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은 소수의 몇몇 인원만 가능한 일이었고 예배시간에 그저 스크린에 의지해서 설교 본문을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랬기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기증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400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다. 성경이 도착하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각 교회마다 100권씩, 장의자 자리 자리마다 한 명당 한 권씩 볼 수 있도록 비치하였습니다. 행해 보였던 교회가 새 성경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전방 연대급 교회에는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쉽게 도전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새 성경책이 가득 차자 몇몇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먼저 성경통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증 받은 2주 후부터 군인가족들과 군종병들과 함께 두 달 간의 일정으로 성경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다과를 나누며 친교를 나누는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들 너무 행복해하고 더욱 성경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GOP장병들에게 시원한 음료, 과일, 부침개 등을 준비해서 나누는 위문 행사도 계획해서 하였습니다.



허원희 군종목사와 81보병연대 평화교회 장병들

성경을 함께 읽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 손에 한 권씩 쥐어지고, 함께 읽어 나가니 역동적인 교회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이후 2명의 집사가 새로 임명되고 하나님 앞에 군선교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기증 받은 성경은 예배시간에도 근무로 인해

교회에 못 나오는 GOP, GP, 격오지 용사들에게 아주 귀하게 전달되어 믿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대한성서공회의 위대한 사역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새로운 부대로 전출 오게 되었지만 다시 한 번 지면을 빌어 대한성서공회의 섬김과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도로 동역하고자 합니다.



28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 황정수 군중병

28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 군중병의 고백

상병 황정수 군중병

안녕 하십니까! 저는 무적태풍 28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중대 군중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황정수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병장입니다. 그러나 저도 작년엔 이등병, 일병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중대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동기를 제외한 모두가 저의 선임이었습니다.

당시 선임병들은 저에 대해서 행동이 느리고 시키면 잘 해내지 못하는 후임병으로 평가했습니다. 꾸중을 듣지 않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의

지할 곳이 없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장점보다는 단점만 눈에 보이기 일쑤였고, 내 안의 자존감은 자꾸 낮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상처 입은 제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 주셨습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어느 날 주일, 예배당에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저도 모르게 성경을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속 깊이 무언가 울컥한 감정과 함께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성경책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또한 제가 혼자 있던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질책하고 헐뜯는 선임들을 향한 불평 불만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싫어하는 선임이 휴가 나갈 때 그 선임병이 휴가 중에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고 기도도 드렸던 일과 혼날 때마다 선임들을 욕했던 너무 부끄러운 제 모습이 생각이 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부족한 죄인도 용서 받을 수 있나요?”라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 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한다. 원수가 너에게 어떻게 하든지 너는 항상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믿음 위에 서서 사랑으로 선임병들과 후임병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후임병이 잘못하면 혼내기만 했던 제가 “나도 처음엔 잘 못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또 선임병에겐 혼나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주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바뀌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임 군중병이 전역하자 제가 그 역할을 맡아 중대 군중병으로서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성서교회에서 우리 태풍교회에 주신 성경이 없었으면 저의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태풍교회에서는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모두들 친구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며, 또 요즘엔 로마서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성경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성경을 나눠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더 많은 기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저처럼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자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본 공회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9월 10일 현재까지, 19,390부의 성경을 군 부대에 기증하였습니다.

아펜젤러 목사 순교 110주년을 맞이하여 그 후손들 본 공회 방문



켄트 크롤러 목사 부부, 캐린 울프, 권의현 사장, 에릭 셰필드(왼쪽부터)

2012년 6월 13일,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목사의 후손인 에릭 셰필드(Eric Sheffield), 캐린 울프(Karin Wolf), 아펜젤러 목사를 한국에 파송했던 랭캐스터 미 연합감리교회 켄트 크롤러(Kent Kroehler) 목사 부부 등이 본 공회를 방문하였다.

아펜젤러 목사는 1885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1887년에 성서번역자회를 조직하고 성

서 번역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에서 최초로 발간된 신약전서(1900년)의 번역에 기여하였으며, 이 성서는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본 공회에서는 아펜젤러 목사 순교 110주년을 맞아 그 공적을 기리며 감사의 뜻을 담아 그 후손인 에릭 셰필드, 캐린 울프에게 감사패를 전하였다. 🌐

아이티에 성경 2만 권을 보내는 협약식 체결

본 공회는 2012년 8월 10일 예장(통합) 총회 사회봉사부와 아이티 크레올어 성경 보급을 추진하기 위한 제3차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본 공회는 예장 총회 사회봉사부로부터 총 사업비 10만 달러를 지원받아 아이티 크레올어 성경 약 2만 권을 제작해 현지로 보내게 된다. 이번에 제작될 아이티 크레올어 성경은 아이티 개신교 연합, 아이티성서공회 등에 전달된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내 도미니카복음교단에 1만 권을 전달해 아이티 접경 지역인 히마니에 위치한 예큐메니칼 디아코니아 센터에 지원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권의현 사장은 “아이티 내 교회들은 너무 기복신앙적인 색채가 짙어 올바른 성



본 공회의 권의현 사장과 예장(통합) 총회 사회봉사부의 최세근 목사 외 관계자들

경의 보급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예장 총회 사회봉사부의 이러한 지원이 아이티 기독교역사에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 공회와 총회 사회봉사부는 2010년 아이티 크레올어 성경 제작을 위한 1차 협약을 맺어 1만 1천 5백 권을 지원한 이래, 지난해에도 2차 협약을 맺은 후 1만 6백 권의 성경을 지원한 바 있다. 🌐

대만과 나이지리아성서공회에서 본 공회 방문

대만성서공회의 출판책임자 제시 수와 반포책임자 싱거 쉐이 2012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본 공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본 공회 실무진들로부터 성경 제작 과정과 성경 번역, 출판, 반포,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관한 성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2012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내한한 나이지리아성서공회의 프레드 오두톨라 총무와 다레 아지보에 부총무는, 본 공회의 성서 조판, 디자인 및 제작 과정을 지원하는 제작 서비스를 소개받고, 이를 나이지리아에서의 성서사업을 위하여 활용하는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본 공회 실무진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나이지리아성서공회의 프레드 오두톨라 총무와 다레 아지보에 부총무 외 본 공회 직원들

‘대한성서공회 연구성경’ 출시

본 공회는 2012년 10월에 ‘대한성서공회 연구성경’을 출시한다. 스마트폰 앱에 이어 개발된 ‘대한성서공회 연구성경’은 아이패드용 앱으로 목회자 및 신학생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반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어 성경 역본과, 4개의 영어 성경,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성경 및 칠십인역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히브리어, 그리스어 사전 6개와 영어 사전 2개, 〈독일성서공회 해설 관주 성경〉, 〈굿뉴스 스튜디오〉의 해설이 실려 있다.

성경 본문을 읽어 가며 원하는 절(한글성경)이나 단어(원어성경)를 클릭하면 해당 절에 대한 해설과 단어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어성경 본문에서 원하는 단어를 선택하면 본문 일치, 기본형 검색, 형태소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성서공회 연구성경’은 성경 본문과 관련된 해설과 영상자료, 관주, 역사서/



복음서 대조, 〈성서 속의 물건들〉 등 풍부한 이해 자료들을 한 번의 터치로 연동해서 볼 수 있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자료들을 메뉴에서 찾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앱스토어에서 ‘대한성서공회’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 및 자세한 내용은 <http://mobile.bskorea.or.kr>를 참고하면 된다.

기념일 성경 나눔 운동 시작

본 공회에서는 2012년 9월 20일부터 ‘기념일 성경 나눔 운동’을 시작한다. ‘기념일 성경 나눔 운동’은 소중하고 특별한 날을 맞이하게 되는 이들이, 이를 기념하여 성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운동이다. 기념일을 맞이하는 당사자 스스로가 ‘성경 보내기’ 후원 헌금을 보내서 ‘기념일 성경 나눔’에 동참할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다른 선물 대신 그 증서를 선물할 수도 있다.

인생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02-2103-8833~4)



우루과이성서공회에서 보낸 감사 편지

우루과이성서공회 라울 곤잘레스 총무는 2012년 6월 29일 본 공회로부터 기증받은 2천여 권의 스페인어 성경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곤잘레스 총무는 이 성경들이 무사히 우루과이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으며, 8월 31일에 다시 서신을 보내 본 공회로부터 받은 성경 전량이 하나님 의 은혜로 불과 두 달만에 모두 소진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우루과이성서공회의 사역을 지원하고, 우루과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동참하여준 본 공회와 성서 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곤잘레스 총무는 본 공회가 기증한 성경 중 마지막 1,200 부의 성경을 받은 한 목사님의 사진을 함께 보내왔다. 🌐

권의현 사장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에서 보낸 성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베풀음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기증하신 성경을 받고 우리의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우루과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 성경을 받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첨부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이 귀중한 성경의 보급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우루과이성서공회 총무
라울 곤잘레스

◀우루과이성서공회가 보급한 성경을 받은 사무엘 목사



본 공회가 기증한 성경을 받은 우루과이성서공회
라울 곤잘레스 총무



전세계 성경, 3천만 부 이상 반포되다

- 2011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



성경을 받고 즐거워하는 필리핀 사람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에서 발표한 '2011년 성서반포보고(the Scripture Distribution Report 2011)'에 따르면, 전세계 성경 반포가 처음으로 3천만 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서 성경 반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전세계 146개 성서공회를 통해 반포된 성경의 부수는 3천 2백 1십만 부 가량이었다. 이것은 전년도 2천 8백 9십만 부에 비해 11.2%가 증가한 수치이다.

〈2011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지역별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합계
아프리카	6,152,033	286,435	531,799	7,206,949	14,177,216
아메리카	13,358,739	1,894,279	9,340,792	274,686,159	299,279,969
아시아/태평양	10,077,731	6,369,854	7,095,427	36,357,992	59,901,004
유럽/중동	2,569,090	1,296,021	2,394,547	1,607,948	7,867,606
합계	32,157,593	9,846,589	19,362,565	319,859,048	381,225,795



오디오 성경을 받은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집트성서교회에서 반포하고 있는 전도지와 특별히 제작된 CD



성경 부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29.2%, 아메리카 지역에서 19.9%, 유럽 중동 지역에서 2.7% 증가한 반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4.2% 감소하였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어 반포된 성경의 주요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로, 전세계 반포 부수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신약의 반포 부수는 2010년과 거의 변함이 없이 9백 8십만 부였다. 성서교회들이 반포한 단편과 전도지 부수는 3억 3천 9백만 부로, 지난해보다 3.7%가 증가하였다.

비인쇄 형태

핸드폰 등에 다운로드 되는 오디오 성서를 포함한 비인쇄 형태 반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십 4만 3천 부의 성경을 반포한 남아프리카성서교회는, 대부분 비인쇄 형태로 아프리카에 반포하였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성서교회는 2만 부, 미국성서교회는 1만 8천 부의 비인쇄 형태의 성경을 반포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성서교회가 2천 5백 부의 비인쇄 형태의 성경을 반포하였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비인쇄 형태로 반포된 성경 부수의 40%에 해당한다. 인도성서교회는 4만 1천 부의 신약을 반포하였다. 유럽 중동 지역에서는 독일성서교회가 2만 부의 비인쇄 성경을 반포하였고, 영국성서교회가 3십 4만 5천 부의 신약을 반포하였다. 🌐

○ Bible a Month Club 회원 신청서 ○

매달 한 권의 성경을...

성명	(남, 여)	교회명	교회직분	
집전화		휴대전화	추천인	
주소				
이메일주소				
약정금액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 매월 20,000원(성경 4권) ☐ 매월 10,000원(성경 2권) ☐ 매월 5,000원(성경 1권) ☐ 매월 원(성경 권)			
은행명	은행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본인은 약정한 후원금이 매월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의 개인정보를 대한성서교회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반드시 회색영역(3면)에 풀칠하여 반으로 접착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Bible a Month Club 주요 프로그램 ○



북한 동포 성서 프로그램

예배와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북한 동포들에게, 성경 보급의 기회가 열릴 때를 기도하며 100만 명에게 보낼 성경을 준비합니다.



중국 동포 성서 프로그램

세계성서교회연합회에서 중국기독교협회와 협력하여 1987년 세운 중국 남경의 애덕인쇄소에서 한글 성경을 제작하여 중국의 우리 동포들에게 보급합니다.



해외 성서 프로그램

가난과 질병, 전쟁과 소외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합니다.



미얀마 성서 번역 및 제작 지원 프로그램

최초의 한글 성서 번역과 보급이 이루어진 것은 서구 성서교회들의 지원으로 가능하였습니다.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2011년)을 기념하여, 미얀마의 5개 소수 종족인 파오, 쿠알심, 쿠미친, 하와나가, 라시드 종족의 성서 번역을 지원합니다.